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 유럽파 축구선수들 올 성적표

유럽 각국의 2005~2006 프로축구 리그가 이미 끝났거나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각 리그에 진출해 있는 태극전사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박지성〉 〈이영표〉 〈이을용〉
〈설기현〉 〈안정환〉 〈차두리〉

주전 굳혀 웃고
교체 멤버 울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무대로 불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박지성은 팀내 주전으로 우뚝 섰다.

멀티형 공격수로 풀타임 12차례, 교체 아웃 11차례, 교체 투입 10차례 등 모두 33경기(전체 38경기)에서 2천91분을 소화했다. 성적은 1골6도움으로 통계로만 볼 때는 빼어나지 않지만 플레이메이커로서 공헌도는 감독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도 폭넓게 인정받았다.

한 달여 늦게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영표는 공격수인 박지성보다 일찌감치 주전 자리를 꿰찼다.

작년 9월10일 데뷔전부터 풀타임을 뛴 이영표는 왼쪽 윙백으로 총 28번 선발 출장해 교체 없이 경기를 마쳐 감독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했다.

터키 슈퍼리그에 진출한 이을용도 올 시즌 팀내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정규리그 34경기에서 마지막 경기를 남겨 놓은 가운데 27차례 출장했고 이 중 20차례를 풀타임으로 뛰며 2골을 넣었다.

36세의 '노장 스트라이커' 서정원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반면 안정환은 16차례 경기에서 3차례 밖에 선발 기회를 잡지 못했고 9차례는 교체 투입, 4차례는 결장했다. 안정환에게는 막판 2경기에서 연속 골 맛을 보며 컨디션 회복 기미를 보인 것이 그나마 위안인 셈이다.

차두리도 공격수로서 큰 활약을 하지 못하다 수비수로 보직 변경까지 하는 등 자신의 포지션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설기현도 팀에서 스트라이커로서 입지가 좁아진데다 리그 중반 피부병까지 겹쳐 10경기 연속 결장하며 만족할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발목 재활치료 박지성 이번주 귀국

발목을 다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5~2006 시즌 최종전에 결장한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휴식을 취하다 대표팀 합류를 위해 이번 주중 귀국할 예정이다.

박지성의 에이전트사인 FS코퍼레이션은 8일 "박지성이 지난 2일(한국시간) 정규리그 미들즈브러와 경기 이후 오른 발목에 통증을 호소해 팀에서 재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비벽을 뚫고…골을 향하여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디 지단(왼쪽)이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프리메라리가 비야레알과의 경기에서 프리킥을 차고 있다. 이 경기는 양 팀이 3-3으로 비겼다. /AFP=연합뉴스

한국, 토고전 유니폼 빨간색 상의·흰색 팬츠

2006년 독일월드컵축구에서 태극전사들은 어떤 색깔 유니폼을 입고 본선 G조 경기를 치르게 될까.

지난 3월 1일 앙골라와 평가전부터 첫 선을 보였던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주유니폼 색깔은 빨간색 상의에 흰색 팬츠와 빨간색 양말을 맞춰 입는 디자인이다.

하지만 이번 독일월드컵에서는 G조 조별리그 첫 상대인 토고전에서만 주유니폼을 입을 수 있고, 나머지 경기는 대표팀의 의지와 상관없는 색깔의 유니폼 조합을 입어야 할 것 같다.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사전에 본선 진출국들로부터 유니폼 정보를 전달받아 본선 조별리그 총 48경기에서 각국이 입어야할 유니폼의 색깔조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별리그 경기도 홈과 원정경기의 개념으로 치러 지기 때문에 한국의 홈경기인 토고전을 제외한 프랑스전과 스위스전의 경우 원정으로 치르게 돼 홈팀의 유니폼 배색에 따라 태극전사들의 유니폼 색깔도 바뀌게 된다.

이지연 생애 첫 LPGA 톱 10

8일 미국여자프로골프 프랭클린 아메리칸 골프 토너먼트 우승자인 크리스티 커가 기타 트로피를 연주하고있다. /AP=연합뉴스

16언더파 5위…크리스티 커 우승
아메리칸모기지챔피언십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조건부 출전권자로 어렵게 투어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이지연(25)이 난생 처음으로 '톱10'에 입상했다.

이지연은 8일 미국 테네시주 프랭클린의 벤더빌트레전드골프장 아이 언호스코스(파72·6천45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프랭클린 아메리칸모기지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5위에 올랐다. 이지연은 2004년 15경기, 작년 19경기, 그리고 올해 4경기 등에 출전하도록 한번도 '톱10' 입상이 없었다.

4년째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영(26·신세계)은 이날 하루에만 7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8위를 차지, 이번 시즌에 처음 '톱10'에 들었다.

우승컵은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의 작년 상금랭킹 3위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돌아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8자 스윙' 짐 퓨릭 시즌 첫 우승 영예
와코비아챔피언십 최종

변칙 스윙으로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짐 퓨릭(미국)이 연장 접전 끝에 시즌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퓨릭은 8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퀘일할로골프장(파72·7천4 38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와코비아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트레버 이멜만(남아공)과 나란히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4라운드를 마친 뒤 연장전 첫번째 홀에서 이멜만을 따돌렸다.

올 들어 첫 우승을 차지한 퓨릭은 통산 10승째를 올렸고 상금 108만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2위(296만2천649달러)로 뛰어 올랐다.

퓨릭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던 세계랭킹 3위 레티프 구센(남아공)은 무려 5오버파 77타를 치는 극도의 부진 끝에 공동 10위(5언더파 283타)로 추락했다.

상금랭킹 1위 필 미켈슨(미국)도 최종 라운드에서 2타를 잃어 합계 2오버파 290타로 공동 35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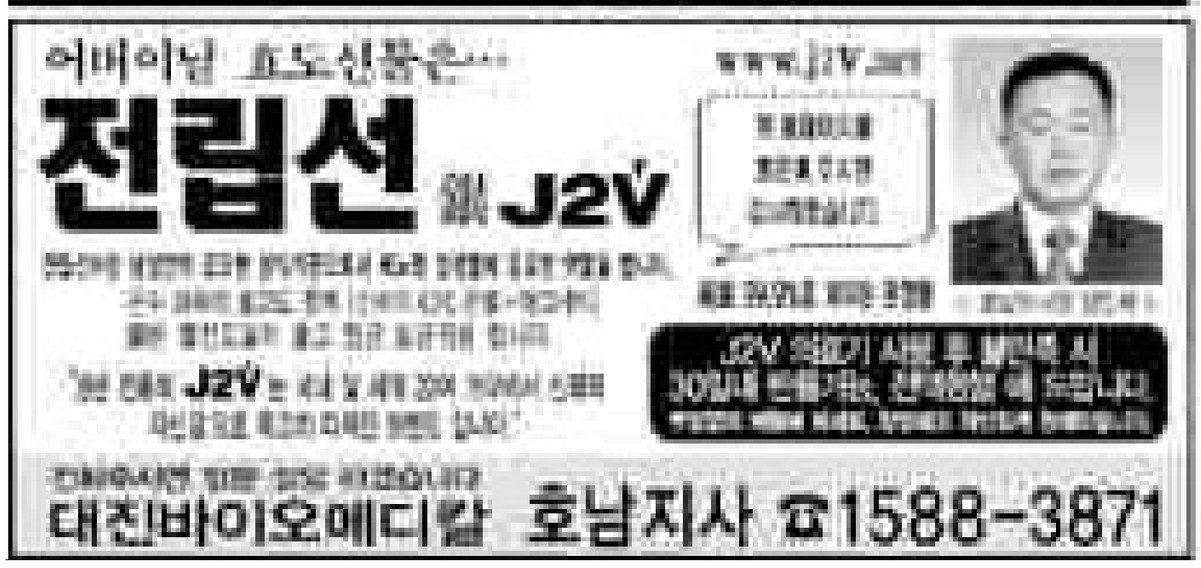
한편 한때 세계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깊은 슬럼프에 허덕이고 있는 데이비드 듀발(미국)은 공동 22위(1언더파 287타)를 차지해 올들어 최고 성적을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송희 올 2승
LPGA 2부 투어

국가대표 출신 유망주 김송희(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부투어인 퓨처스투어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송희는 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의 언더우드골프장 선라이즈코스(파72·6천447야드)에서 열린 퓨처스투어 IOS 퓨처스골프클래식 대회 마지막날 사라 휘트(미국)와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8타로 동타를 이뤄 9홀 연장전에서 승리를 일궈냈다.

앞서 김송희는 지난 4월 루이지애나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프로 선수로서 퓨처스투어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데 이어 투어 2승째를 챙겼다.

올해 LPGA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 공동 15위를 차지, 아마추어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안젤라 박(18)은 합계 7언더파 209타로 3위에 입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